

### 도내 주요 대학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 전북대 2만1160명·전주대 1만197명 지원

전북대, 학생부교과전형 1만3928명·학생부종합전형 7233명 지원  
원광대, 1만2551명 지원... 경쟁률 4.61대 1로 호남 사립대 중 가장 높아  
전주대, 전년보다 300여명 늘어... 학생부교과 지역인재2전형이 최다

7.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북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가 발표됐다. 전북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999명 모집에 2만1,160명이 지원해 7.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19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결과다. 학생부교과전형은 2,123명 모집에 1만8,927명이 지원해 6.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870명 모집에 7,233명이 지원해 8.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큰사전형 컴퓨터공학 나노융합공학과 이공계 교수 갑남훈 교수 트란듀이탄 교수 박석주 석사과정생(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이 개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희 교수팀에 따르면 고가의 촉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내부식성과 내산화성을 갖는 바리온 2차원 삼원계 전이금속 분해물 소재인 엠베(MBe) 결정구조 내에 극소량인 0.9% 백금 단원자 촉매를 흡착 및 도핑공정을 통해 복합화한 저비용의 고효율 촉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소재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인 에너지 앤 인바이먼트 사이언스(Energy & Environment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원광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평균 4.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4.25대 1)보다 상승한 결과이며 전남과 전북 사립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광대는 지난 15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만2,551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최고 경쟁률은 한의예과로 13명 모집에 274명이 지원해 21.08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약학과 20.17대 1, 치의예과 17.14, 간호학과 7.07, 역사교육과 7.10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에서는 응급구조학과가 16.75대 1로 가장 높았고 작업치료학과가 10.46, 반려동물산업학과 10.25대 1, 게임콘텐츠학과 7.19, 일어교육과 6.83, 건축학부(5년제) 6.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대학교는 2,802명을 모집하는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전년도 지원 인원보다 약 300명이 늘어난 1만1,977명이 지원했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지역인

재2전형)이 18.0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1전형)이 7.63대 1,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이 4.89대 1,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이 4.29대 1,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이 3.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도 지원 인원보다 상승해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로는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에서 물리치료학과가 22.0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고,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의 간호학과가 18.73대 1, 학생부교과(지역인재2전형)의 간호학과가 18.00대 1, 학생부교과(지역인재1전형)의 간호학과가 14.22대 1,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의 방사선학과 12.29대 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2024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인 웰빙문화콘텐츠학과 10.43대 1을 기록했으며 식품영양학과는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에서 5.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5.41대 1, 전주교육대학교는 3.51대 1, 예수대학교는 5.04대 1을 기록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이 2023년 지속가능발전환경대학 사업으로 지역민 대상 연속 강의를 마련한 가운데, 지난 12일 전북대 문경연 교수 등이 대학과 기업, 방송의 3인 3색 이야기를 진행했다.

###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지역민 대상 연속 강좌

지속가능발전환경대학 사업 일한... 내달 31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이 2023년 지속가능발전환경대학 사업으로 지역민 대상 연속 강화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와 한국국제정보공사(KIX)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경제와 환경, 사람, 평화, 협력 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핵심 주제인 5와 ESG 지역적 실천 사례를 주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모두 8개의 강좌가 마련됐다. 지난 5일 이유진 녹색 전환연구소 소장이 '기후위기 시대, 담대한 전환을 주제로 첫 강화를 시작한 뒤, 12일에는 전북대 문경연 교수(국제개발협력원 부원장), 서수권 JTBC 기자, 최정환 한국국제정보공사 ESG 경영처장이 대학과 기업, 방송의 3인 3색 이야기를 통해 상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9일에는 진양희 그로스허브컴퍼니 대표가 '기업을 성장시키는 ESG 행동주의'라는 주제로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경연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부원장은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고민하고, SDGs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자발적인 시민 실천을 기대하며, 이번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에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좌 참여를 위한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2-3543) 또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2-295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저비용·고효율 그린수소 생산 핵심소재 개발

전북대 이중희 교수팀

엠베 결정구조 내 0.9% 백금 단원자 촉매 흡착·도핑공정 통해 복합화



이중희 교수, 김남훈 교수, 트란듀이탄 교수, 박석주 석사과정생

미래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로 떠오른 음이온 교환막 방식 수전해 장치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소재 기술을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이공계 교수 갑남훈 교수 트란듀이탄 교수와 박석주 석사과정생(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이 개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소재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인 에너지 앤 인바이먼트 사이언스(Energy & Environment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중희 교수팀에 따르면 고가의 촉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내부식성과 내산화성을 갖는 바리온 2차원 삼원계 전이금속 분해물 소재인 엠베(MBe) 결정구조 내에 극소량인 0.9% 백금 단원자 촉매를 흡착 및 도핑공정을 통해 복합화한 저비용의 고효율 촉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소재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인 에너지 앤 인바이먼트 사이언스(Energy & Environment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중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촉매는 저비용 고효율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실제 수전해 장치 실용화 측면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미래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11월 4일 '수업나눔 박람회'

도교육청, 도내 교사들 대상 20일까지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

도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사례를 한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4일 2023년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업사례 공유를 통한 수업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통해 미래교육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제별 수업 혁신특강 및 토론회, 교과별 수업 시연·수업 관찰토의, 교과별 수업나눔 부스 운영 등이 있다. 특히 교과별 창의·융합형 수업 모

형에 기반한 수업사례 나눔과 에듀테크 기반 활용 수업 나눔 및 수업모형 개발 자료 전시 등을 통해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업나눔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분청 중등교육과에 이메일(jgpy82@jedukr)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수업사례 나눔 분야와 전시 부스 운영 분야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업혁신은 교사들의 수업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본 결과물을 마음껏 선보여 진정한 수업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산단 RE100 실현·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대, 제2차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포럼



제2차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포럼이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열렸다.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 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시 사회적경제정책연구회, 전주시 에너지센터 및 전북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산업단지 RE100 실현방안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정책포럼은 한국과총의 지역과학기술 문제해결사업 공모과제로서, 전라북도 대표과제로 선정돼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는 지역 내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과총 전북지역연합회 양문식 회장의 환영사 등으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전주에너지센터 최우순 센터

장이 전북 산업단지 RE100 방법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에 대해 발제하고, 전북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배상순 이사, 지방정부와 산업단지의 RE100 실현을 위한 협업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박은재 운영위원장이 전북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안을 한 후, 최서연 전주시의원, 문지현 전북북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석진 회장 등 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통해 전북 산업단지의 RE100 실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남희 책임교수(전북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라북도 과학기술 분야 중 에너지전환 분야 실험실 창업 분야 및 다양한 청년 스타트업 등에서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필리핀 바탄페니술라 주립대와 국제교류 강화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필리핀 바탄페니술라주립대학교(이하 BPSU)와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대학 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증진하며,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문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직원 인적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대회 등의 추진, △교육 정보 및 시설의 상호 교류 등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추석 맞아 22일까지 공직복무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지 쉬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추석명절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로 3개 점검반을 편성, 본청 소속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 점검반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을 비롯해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차려 해대 및 품위훼손 행위 △명절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사실보안, 비상연락체 등 보안 관리 실태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갑질근절 등 교육 여부와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반부패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더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감 주제 협의체인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을 운영중이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 반부패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학교차별 종합감사 추진(감사관) △방과후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미래교육과)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문예체육건강과) △현장체험학습 계약과정에서의 부패요인 파악 및 제거(민주시민교육과) △시설공사 부패근

절 TF 구성 등 20개 부서, 32개 추진과제 이행실적을 공유했다. 특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 중 청렴노력도 영역의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평가가 항목 및 지표를 꼼꼼히 살펴 추진실적 제출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면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로 수립한 청렴실천 자율과제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